

# 조합원 눈높이 맞춰 선거 홍보...투명 선거 이끈다

##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

### <1>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진행된 제1회 선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하지만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구태는 여전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과열되면서 후보자 등록 전부터 금품수수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각종 음해나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다. '조합장'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역 내 농수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활동과 선과 과정, 과제 등을 살펴봤다.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홍보·참여 분위기 이끈다=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 홍보활동을 추진중이다.

지난 1회 선거가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공명선거 홍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농촌지역 어르신 등 고령의 조합원들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과거

인품·능력·공약 보고 선택 설명절 부정선거 근절 홍보 공명선거 실천 마당극도

그릇된 선거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농협 안팎의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는 게 투명한 선거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설 명절을 전후해 관내 전 농·축협 영업점에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글귀가 새겨진 세뱃돈 봉투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며 부정선거 근절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역 내 조합원들의 방문이 잦은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소풍가트에 '금품수수 등의 불법선거 시 주요 벌칙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부착, 부정선거의 경각심을 높이며 공명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공명선거 실천을 주제로 한 마당극도 선보였다.

전남농협은 농·축협 총회를 비롯한 각종 조합원 행사 때마다 공명선거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마당극을 선보이고 있다. 마당극 '심장이의 선택'과 판소리 공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을 쉽고 해학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전남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농협은 최근 들어서는 관내 읍·면·



광주지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들이 18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준법, 정책선거 실천 다짐대회'에 금품선거척결, 정책선거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리 단위의 행정방송을 이용해 선거법 관련 주요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거법 위반 시 벌칙과 신고시 포상금 내용을 방송해 조합원들이 직접 귀로 듣고 공명선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조합원들이 재미있고 쉽게 위탁선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인품과 능력, 선거공약의 중심으로 적임자를 선택하고 투표하는 한 단계 성숙된 선거문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금품 살포 방지 위해 2015년부터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부터다. 농협등조합의 경우 지난 1987년 조합장 및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0년 농·축·인삼협등조합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입후보자 전원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농협 안팎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사건이다. 이후 2014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제정, 각 지역별 조합이 별도로 시행하던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동시에 진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탄생하게 됐다.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열린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이전 각 조합별 시행됐던 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 7곳에서 농·축협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조합장 당선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전남 고용시장 훈풍...실업률 전국 최저

1월 고용률 62.2% ...전년보다 1.0%p ↑

전남 고용시장이 산업단지(發) 훈풍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조선업 수주 물량 증가, 여수산단 공장 증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전공대 유치 등 경기 상승 호재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1월 전남지역 고용률은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제2인선에 이어 전국 3위다. 제주를 제외하면 전남은 고용률(61.5%)이 전남보다는 높지만,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이어서 전국과 대조된다. 전남지역 취업자 수는 94만 명으로 지난해(92만7000명)보다 1만3000명 늘었다.

고용이 늘자 실업률은 낮아졌다. 전남지역 1월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동기대비 0.8%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전국 최저다. 실업자 수는 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줄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 질도 나아지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0명이 늘었으며, 일용근로자는 4만4000명으로 1만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가 19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5000명 늘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과 함께 고용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는 올해가 고용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 고용 상승 기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주한 조선산업 작업 물량 증대, 여수산단의 대표기업인 GS칼텍스·LG화학 공장 증설, 광양 목성지구 건설공사 등에 맞춰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민선7기 목표인 혁신 일자리 12만 개 창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민선7기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결과, 어려웠던 전남의 고용 상황이 지난해 4분기부터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며 "올해는 이 기조가 더욱 확대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일 5월 11일로 지정

국무회의 의결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5월 11일로 정해졌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부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의결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념일 선정을 위해 지난해 선정위원회를 구성, 4개 시·군이 추천한 지역 기념일을 검토하고 공영회 등을 거쳐 역사성, 상징성, 지역참여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기념일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했다. 전주는 전주화약일(6월11일), 고창 무장기포일(4월25일), 정읍 황토현 전승일(5월11일), 부안 백산대회일(5월11일)을 추천했다.

이번에 기념일로 선정된 황토현 전승일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대승

거둔 날이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대승한 날로, 이 날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됐으며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이번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기념·선양사업이 지역별·소규모에서 탈피해 국가 주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향후 시군별 기념·선양사업 추진에

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군 및 단체에서 소원했던 기념일이 14년이라는 산고 끝에 힘겹게 제정된 만큼 앞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도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을 법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하나되는 선양사업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념사업들을 적극 발굴·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오천경매**  
★투자에 관한 모든상담★  
최신규(예약필수).010-3605-5000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약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의 붐.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9년 2월 1일(금) ~ 2월 27일(수)  
• 교육기간: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명의로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 강 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골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의로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의로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062)511-0030 • 팩스: 062)512-8767